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1:30부터 지하 친교실에서 웃놀이가 열립니다.

다음 주일에 열리는 임원회에서 예배의 공간이 부족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임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봄학기 교사세미나가 27일(토)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중구용산 지방회가 다음 주일(28일) 오후 3시 예수마을교회에서 열립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나와 있는 신앙실천사항들을 준수하십시오.

1부 예배	사 55:1-9 / 시 63:1-8 고전 10:1-13 / 눅 13:1-9	2부 예배	눅 12:35-40
-------	--	-------	------------

오늘 식당 봉사 : 유경순 하미림 이유진 박숙미 이미휘 이은옥 송형운 정재기  
 다음 주 식당봉사 : 박미영 이은주 주은경 윤정화 이선영 박범희 조성일 박기영  
 오늘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 (56-6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 (51-55세)  
 커피 판매 봉사 : 5여선교회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모임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2주 】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0.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봄이 조금씩 다가오건만 아직 얼음장처럼 차갑기 그지없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녹이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가슴에 품어 싹을 틔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대립의 강도를 높여가는 남북을 붙잡혀 여겨주십시오. 손에 든 총칼을 내려놓고 얼굴을 마주보며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행여나 지난날과 같이 되돌릴 수 없는 아픔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갈5:24,25 ..... 인도자  
 ♣ 교 독 문 ..... 125. 사순절(2)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대표기도 .....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03. 날 위하여 십자가의 ..... 다 함께  
 ♣ 성경봉독 ..... I. 창15:1-11 빌3:17-4:1 눅13:31-35 ..... 최다미 선생  
 II. 렘 14:7-9 ..... 이국노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찬 양 ..... 참 좋으신 주님 ..... 찬양대  
 말 씀 ..... I. 하늘을 향해 오르다 ..... 김재흥 목사  
 II.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 다 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강신철 이해경 국지연 김기성 이은정 김성욱 진혜정 김애순 김용진  
 박효선 김용태 박정숙 김인석 이선화 김종철 고영애 김지호 전혜리 김혜진  
 김희진 박홍재 노성찬 김문복 손인선 박명제 서미경 박창운 허정윤 백의경 변재민  
 이소혜 선민서 심유경 송인선 심화섭 정영란 양상철 오슬기 오혜민  
 우순덕 원용일 최현선 유금주 윤미경 윤수진 이봉옥 이부곤 이순용 구신실 은종인  
 이국노 김민화 이근식 신영신 안상숙 이미휘 이봉희 임명희 임선양 신현숙 이자영  
 이재삼 전정현 이주경 준박소연 이한림 김명희 임명희 임종삼 정현선 장동훈  
 정은선 장미경 장병준 박소현 전영린 김행자 임명희 정영복 정영복 정영복 정영복  
 지영자 최양순 최지현 최진성 최영은 한봉섭 허신열 허호 박성실  
 현 진 황지현

### 감사헌금

김영호 김종철 고영애 김중수 이순정 박재영 이현정 송한별 김한솔 이유일  
 김미희 이호은 신윤주 장동열 최윤주 장영숙 정수철 조순덕 조은석 이한님  
 최종훈 무명15

### 생일감사헌금

문금석 정두리

###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용진 박효선 김재환 김진선 김정진 김혜정 임승동 백혜숙 무명4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정두리	청 파1속	김재흥	교회
안 디 옥	최경미	이소순	청 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신영신	청 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백묘현	청 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박미영	청 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이봉옥	청 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권희	윤수진	청 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강상연	청 파8속	이범석	
나 사 렛	김경혜	홍춘숙	청 파9속	김인걸	
			청 파10속	장영숙	

## 대신 매를 맞고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e-메일 한 통을 받았다  
 -당신은 목에 너무 힘을 준다는 거 알아요?  
 시인이라 이거지요? 시인이라 이거지요?

마음이 한 움큼 뜯겨나가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하루가 지나고  
 또 e-메일이 왔다  
 -어젯밤 술에 취해 방배동에서 모 시인과 다뤘는데  
 돌아와 그 시인에게 e-메일을 보낸다는 게  
 잘못 배달된 것 같네요. 죄송해서 어찌지요?

평소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나도 답 메일을 이미 보낸 뒤였다

딸아이 피부약을 내 감기약인 줄 알고 먹고서  
 감기가 나온 적도 있다  
 대신 매 맞고 뉘우친 마음의 자리 푸른 매 자국이 싱싱하다

- 복효근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의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	390. 예수가 거느리시니	.....	다 함께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품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고하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다 함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겠습니다. 반성과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복	.....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웃놀이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신진식전도사	공동기도	김윤하 선생
	2부 김기석 목사	안길상 권사	조항미 집사

2월	영접위원	김인걸 박범희 박석희 권미숙 성귀옥 박미영 이명희
	헌금위원	김정민 백혜숙

## 비극적 간극 속에서

... 개인적 · 정치적 삶에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하는 모든 긴장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도전적인 것은 “비극적 간극”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견디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 간극의 한쪽에는 세상의 어려운 현실이 있다. 우리의 영혼을 부수고 희망을 무너뜨리는 현실 말이다. 그 간극의 다른 한쪽에는 가능성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 말이다. 우리는 전쟁에 빠져 있는 세상을 보지만 평화의 순간 또한 알고 있다. 인종적 · 종교적인 대립을 보지만 연합의 순간을 알고 있다. 불공정으로 인한 고통의 고통을 보지만 물질적 · 영적인 나눔으로 인한 풍요의 순간을 봐왔다. 이런 종류의 가능성은 부질없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목격해온 대안적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극적 간극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비극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간극이 비통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간극은 인간에게 영원히 지속될 운명적인 것이다. 비극적 간극이 인류 역사의 장(場)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희망을 갖고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도 그 간극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혹독하기 그지없는 비극적 간극 위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가능성 사이의 긴장을 참지 못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싶은 유혹을 계속 받는다. 만일 우리가 현실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정신을 졸먹는 냉소주의에 빠진다. 폭력이 거듭 반복되는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본 우리는 평화를 위해 힘쓰기보다는 전쟁을 대비한다. 그래서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가능성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뜬금없는 이상주의에 빠진다. “만일 ...하면 좋을 텐데”라는 환상의 세계에 산다. 다름으로부터 너무 먼 곳에 서 있다 보니 현실 파악력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냉소주의와 이상주의는 정반대로 보이지만 똑같은 결과를 빚는다. 둘 다 비극적

간극에서 우리를 끌어내주지 못한다. ...

우리가 비극적 간극 속에서 오랫동안 희망을 가지고 견디며 행동하려면, 단지 “효율성”을 성패의 궁극적인 척도로 삼을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효율적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측정 가능하고 단기적인 결과가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또는 1차적인 기준이 될 때, 그 결과는 예측되는 만큼이나 축은한 것이다. 우리는 점점 더 작은 과제에만 매달린다. 즉시 보이는 결과를 내는 과제들 말이다. 그리고 커다랗고 어려워 보이는 핵심적인 과제는 포기해 버린다.

우리는 효율성보다 높은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충실함이라는 기준이다. 우리는 자신이 의지하는 공동체에 충실한가? 절박한 필요에 대응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가? 우리 본성의 보다 선한 음성에 충실한가? 인류와의 영원한 대화에, 진리에 다가가는 방식으로 말하고 듣는 것에 충실한가?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도 공공선을 증언하라는 용기의 부름에 충실한가? 충실함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결코 완수될 수 없는 과업에 계속 힘쓸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업이란 정의를 실현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우리는 미래를 오직 상상 속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 평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정의를 계속 꿈꿔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현재 속에 살아간다. 거기에는 단조로움과 테러, 공포와 희망,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초월적인 기쁨이 함께 깃들여 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느 것도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 않은 기분이 종종 든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생애 안에 성취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진실하거나 아름답거나 선한 것은 어느 것도 역사 속에서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고결하다 해도 혼자 힘만으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라인홀드 니버)